



● 2009년 역사 및 천문력 발행

우리 연구원은 2009년 역사 및 천문력을 발행하였다. 역서는 각 지역의 일·월 출몰 시각과 남중시각, 태양과 달의 위치, 음·양력에 관한 설명과 음·양력 환산표 등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천문력에는 천문애호가들에게 유용한 달의 위상 모습과 주요 유성우 정보를 비롯해, 계절별 별자리 그림, 2009년에 볼 수 있는 주요 천문현상 등을 수록하고 있다. 또한, 천체사진공모전 수상작 및 이주의 천체사진 등 전문 관련 사진이 함께 실려 있다.

● 직원 연찬회 개최

우리 연구원은 지난 11월 13, 14일 양일 간 대전 한화리조트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전 실현을 위한 전 직원 대회”를 개최하였다. 13일에는 첫 순서로 박석재 원장이 ‘하늘을 담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해의 선진천문기관들의 동향을 전하고, 구성원의 애사심과 천문학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내부적 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후 공기직강 확립을 위한 청렴서약식 및 기초기술연구회 조성복 실장의 ‘코스모스의 바닷가에서 : 자기창조(Self Creation)’ 강연과, 각 부서의 선도연구그룹 및 핵심기술그룹 육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프로그램 후반에는 양내운 소장의 즐거운 일터를 만들기 위한 조직과 구성원의 노력에 대한 ‘감성경영과 유머리더십’ 강연이 있었으며, IYA2009 마스터플랜 소개 및 박필호 선임연구부장의 ‘기관 중점추진사항’ 발표로 우리 연구원의 운영 방향에 대한 전 직원과의 공유 시간이 마련되었다. 14일에는 2009년부터 새롭게 운영될 ‘한국천문연구원 교육훈련체계(안)’에 대한 설명과 부서의 운영 성공 사례에 대한 발표와 전 직원 투표 및 시상식이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우리 연구원의 중장기 로드맵 추진에 대한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공유와 화합의 의식으로 조직과 구성원의 정렬된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창출을 기약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 제2회 전국학생천체관측대회 개최

우리 연구원은 국립중앙과학관과 공동 주최로 지난 11월 8일 본원에서 “제2회 전국학생천체관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천체관측 능력을 키우며 이에 따른 천문교육 활성화를 취지로 (사)한국 아마추어천문학회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는 전국에서 지역 예선을 거쳐 중등부 11팀, 고등부 28팀이 참가하였다. 관측대회의 평가는 한 학교당 학생 4명, 지도교사 1명으로 구성되어 팀별로 행한 지평고사와 천체망원경 조작 및 천체관측 시연 등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고등부 대상은 동두천고등학교(홍성식, 윤지영, 백승철, 이소담, 지도교사 강남모)에서, 중등부 대상은 수원북중학교(송준영, 이경섭, 이요한, 어중현, 지도교사 노정립)에서 각각 수상하였으며, 이들에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이 수여되었다. 시상식은 29일 국립중앙과학관 국제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관련사진 : Photo Sketch(p.10~11)

▶ 제2회 전국학생천체관측대회 수상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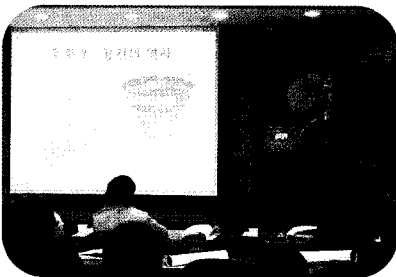
구분	중등부	고등부
대상	수원북중학교	동두천고등학교
금상	대전 어은중학교	경북과학고등학교
	서울 고덕중학교	서울 창문여자고등학교
은상	대전 내동중학교	인천 인제고등학교
	대전 진잠중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
동상		대전 반석고등학교
		동대전고등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
		대전여자고등학교
		춘천여자고등학교

● 제13회 금련산은하축제



우리 연구원은 지난 11월 15일 부산 금련산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한 "제13회 금련산 은하축제" 행사를 후원하였다. 은하축제에서는 별자리 강연과 천문퀴즈, 천체관측, 모형로켓 발사시범 및 각종 체험부스가 진행되었으며, 우리 연구원은 천체사진, 중력체험저울, 만 원권에 있는 과학유물 등을 전시한 부스와 이동천문차량 '스타카(Star Car)'를 운영하였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천체관측을 통해 우주를 알리고 보여줌으로써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더 큰 꿈을 심어준 축제가 되었다.

● "금요일에 과학터치" 진행



지난 11월 14일 대전역 5층 교양실에서 "금요일에 과학터치"가 진행되었다. 이날은 고천문연구그룹 양홍진 박사가 '우리 조상들은 어디서 어떻게 하늘을 보았을까?'라는 주제로, 고려와 신라시대의 천문대 및 조선시대 천문 관측 기기, 천상열차분야지도 등 잊혀져가던 전통천문학에 대한 내용을 강연하였다. "금요일에 과학터치"는 서울역과 부산역, 대전역, 광주역에서 매주 금요일 열리는 대중 과학강연 프로그램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들과 과학기술의 새로움을 찾는 사람들 사이의 지식을 나누는 행사이다.

● 찾아가는 천체관 및 과학관 탐방

우리 연구원은 11월 12일에서 14일까지 "찾아가는 천체관 및 과학관 탐방"을 진행하였다. 이 행사는 직접 해당학교를 찾아가서 천문교육과 천체관측을 운영하는 '찾아가는 천체관' 과 학생들을 현장에서 데리고 와서 국립과학관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이 결합된 것이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으로 첫 번째는 충남 보령시 송학초



등학교에서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충북 단양군 단천초등학교(12월 3일~5일)와 경북 상주시 모서초등학교(12월 10일~12일)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우리 연구원은 지난 11월 5일 전남 김제시 청하초등학교에서 열린 '찾아가는 천체관'에 천문학 강연과 이동천문차량 '스타카(Star Car)'를 후원하였다.

● 기관 과학기술엠베서더



'기관 과학기술엠베서더'로 지정된 우리 연구원은 지난 11월 3일 대전송림초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하여 강연과 연구 시설 견학을 진행하였다. 이날 광학천문연구부 대형망원경그룹 이동욱 박사의 망원경을 주제로 한 강연을 시작으로, 천과천문대와 태양망원경 견학이 이루어졌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후원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하는 '기관 과학기술엠베서더'는 일반인에게 우리 연구원의 연구 분야를 소개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며, 과학기술문화 대중화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부출연 연구소 및 연구기관 차원의 과학기술 홍보대사이다. 이번 강연을 포함해 지난 5월 21일 양홍진 박사의 부림초등학교 강연과 6월 10일 임홍서 박사의 동신초등학교 강연 등 올해 총 3건이 진행되었다.

● 안전관리현장선포 주간, 안전관리교육 실시

우리 연구원은 11월 4일 "안전관리현장선포 주간"을 맞아,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올해 안전관리현장 선포 4주년을 기념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인근 연구원 사고사례에 관련된 내용을 교육하였다. 정부에서는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안전한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강령인 안전관리현장 정신을 추진하기 위해 '안전관리현장 실천주간'을 지정하여 매년 11월 첫째 주마다 시행하고 있다.

● 김영수 박사 세계인명사전 3년 연속 등재

우리 연구원 김영수 박사가 세계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09년판에 등재된다. 내년에 발간될 이 인명사전에는 세계 215개국 60,000여 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등재될 예정이다. 김영수 박사는 2007년에 발간된 '아시아 인명사전' 초판에 등록된 이후, 2008년에는 '과학기술자 인명사전 10주년 기념판'에 등록됨으로써, 3년 연속 마르퀴즈의 인명사전에 등재되었다. 김영수 박사는 런던본부대학(UCL)에서 대형망원경 기술개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유림남천문대에서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 천문 발전에 기여하였다. 또한, 다목적실용위성 2호의 카메라 개발에 시스템공학자로서 활동하였으며, 최근에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기획에 참여한 바 있다. 현재는 세계 최대급 광학망원경인 GMT(Giant Magellan Telescope)의 국제공동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한국 우주과학회 총무이사로서 우주과학 진흥에 기여하고 있다.